

St. Jude Medical 판막에 의한 승모판 치환술의 임상성적

전남의대 흉부외과학교실

나 국 주 · 문 형 선 · 안 병 희 · 김 상 형

1986년 8월부터 1996년 5월까지 SJM판으로 승모판치환술을 받은 172례의 임상성적을 분석보고 하고자 한다.

1. 연령분포는 15세부터 66세였고, 40대가 가장 많았으며, 평균연령은 41.92세이고, 남녀의비는 54:118로 여자에 월등이 많았다.
2. 과거력, 검사소견, 수술시 소견 등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전체의 82.0%인 141례가 원인이 류마치성으로 추정되었다.
3. 172례중 61.6%인 106례가 술전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었으며, 수술시 좌심방에서 혈전이 발견된 경우는 18례였으며 이중 15례가 심방세동례였다.
4. 술후 합병증으로는 수술 당일 사망한 2례를 제외한 170례중 저심박출증후군이 24례 (14.1%)로 가장 많았다.
5. 병원사망이 6례로 3.5%의 사망율을 나타냈고, 원격사망은 166례중 관찰에서 제외한 14례를 제외한 152례중 5례가 사망하여 3.3% (0.82%/100p · y)의 사망율을 나타내었다.
6. 1996년 7월말까지 관찰이 가능했던 147례의 평균 관찰기간은 49.23개월이었으며 NYHA 기능분류는 146례가 NYHA I - II도로 개선되었으며, 술전평균 2.90 ± 0.57도에서 술후 1.12 ± 0.34도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.
7. 1986년 8월부터 1996년 7월말까지 Kaplan-Meier법으로 계산한 10년 생존율은 93.6%였다.